

‘핵심 전략기지’ 르노삼성차, 르노그룹 보석 되다



SM6와 QM6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은 르노삼성차 중앙연구소가 르노그룹내의 아태지역 연구개발 허브로서 기능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 QM6(사진)는 올해 80여 개국에 약 4만 대 가량 수출이 예상된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자동차

국내 중앙연구소 아태지역 R&D 허브
대구 차량시험센터 신설로 역할 확대
부산공장도 핵심 생산기지 비중 커져



르노삼성자동차가 르노그룹 내에서 역할과 비중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르노의 승·상용 부문을 이끄는 플래그십 세단 SM6와 SUV QM6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르노삼성차 중앙연구소는 르노그룹의 아태지역 연구개발(R&D) 허브로서 최근 기능과 책임이 더욱 확대됐다. 또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이 그룹 차원의 글로벌 전략 차종인 QM6의 공급을 본격화하는 등 핵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르노그룹, 아시아 지역 최초로 대구에 차량시험센터 건립

지난달 르노그룹은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주행시험장에 차량시험센터를 세운다고 발표했다. 시험 센터는 르노삼성차의 전반적인 차량 시험을 수행할 메인 차량시험센터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르노그룹 차량 시험센터로 활용된다.

르노그룹과 르노삼성차는 대구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협력해 글로벌 신차 개발에 필요한 각종 특수 도로, 염수로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규격 테스트 설비를 센터에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험 센터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할 신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물론 전기차, ADAS(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의 시험 및 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그룹 차원의 전략적 결정을 통해 르노삼성 중앙연구소는 올해부터 르노그룹의 프리미엄 SUV 차종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 테스트 역량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시험센터의 국내 설립이 결정됐다. 르노그룹이 아시아 지역에 차량 시험 센터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르노삼성 중앙연구소는 르노그룹 내에서 프랑스 본사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세그먼트의 신차 연구개발 과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연구소다. 차량 연구개발,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구매, 품질 등이 통합된 종합 자동차 연구개발 센터로 차량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신차 개발 과정 전반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10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한국은 물론 르노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R&D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이 연구소는 시험 센터까지 국내에 보유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연구개발 수행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는 지난해 중국 동풍 르노자동차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상당수의 인력이 중국에 파견되어 기술 지원과 교류를 하는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역할도 확장해나가고 있다. 또한 중앙연구소에는 ‘르노 디자인 아시아’가 자리잡고 있어 르노그룹 주요 차량들의 디자인, 컬러, 소재 등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고 생산성 인정받은 부산공장, QM6 생산하는 핵심 기지

다목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생산기지로서 부산공장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26일 마산항에서 글로벌 SUV QM6를 대규모 선적하며 유럽시장 진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QM6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12개국 1793대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영국 등 북유럽까지 확대하여 올 연말까지 약 3만 대가 유럽지역으로 수출된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남미, 중동, 호주 지역을 포함해 올해 80여 개국에 약 4만 대 가량 수출이 예상된다.

QM6는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진이 개발하고 프랑스 르노 디자인과 한국의 르노 디자인 아시아가 함께 디자인을 맡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최신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글로벌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자체 공장이 있는 중국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수출 차량은 모두 부산공장에서 생산돼 개발에서 전 세계 판매되는 물량 공급까지 르노삼성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공장은 연간 최대 30만 대 생산능력으로 르노 그룹 내에서도 최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토대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품질과 생산성에서 최고의 경쟁 우위를 인정받아 QM6의 전 세계 물량 공급 책임을 맡게 됐다.

이와 함께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내 교차생산 전략에 따라 2014년부터 부산공장이 생산해 북미 수출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닛산 로그도 뛰어난 품질과 생산성이 검증되면서 당초 연간 8만 대를 크게 상회하는 물량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닛산 로그는 2015년 11만7560대, 2016년 13만6309대가 생산돼 북미 지역으로 수출됐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물량이 부산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본사를 제외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것이 한국”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 르노삼성차의 역할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반려동물과의 교감, 커플 아이템 어때요

반려동물 목줄-반려인 팔찌 외출 필수품
애견옷-가방세트, 목걸이-인식표도 인기



조사전문기관 ‘유로모니터(Euro monitor)’에 따르면 최근 펫시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휴대전화 등과 같은 장난감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반려인들이 동물을 사람처럼 여기고 대우해주는 ‘펫 휴머니즘(Pet Humanisation)’이 확산하면서 사람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길 바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사람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는 커플템의 인기가 높다.

●외출 필수아이템도 커플로…‘프렌드쉽칼라’

반려동물 외출 필수 아이템인 목줄과 반려인의 팔찌가 한 세트로 구성된 ‘프렌드쉽칼라(FRIENDSHIPCOLLAR)’는 흔하지 않은 독특한 디자인의 패턴으로 제작해 반려견과 반려인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한다.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PETA에서 인정받은 제품인 ‘프렌드쉽칼라’는 반려동물이 착용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작돼 반려견에게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부티크(BOUTIQUE), 클래식(CLASSIC), 컬렉션(COLLECTION) 세 라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컬렉션 라인 중 글리터 시리즈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반려견 목줄에는 메달을 달아 인식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 장인 손길로 한뼘한뼘…‘이나모라다’

100% 핸드메이드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탈리아 반려동물 의류브랜드 ‘이나모라다(INAMORADA)’는 이탈리아에서 독점으로 만들어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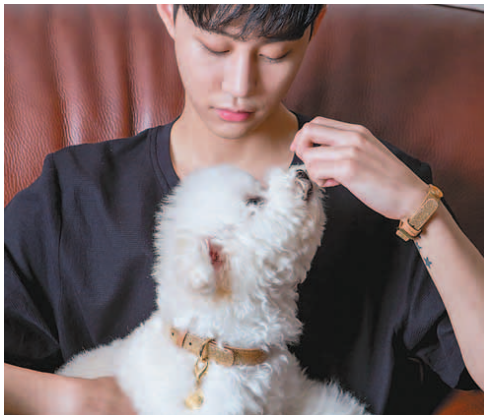
장인이 직접 의류를 디자인하고 제조한다. 독자 프린트로 차별화한 반려견 옷 패턴과 같은 프린팅의 애견가방이 감각적인 느낌을 준다. 이나모라다의 애견 옷과 애견 가방은 심미적인 부분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착용감을 먼저 생각했다. 가방 내부에 쿠션을 내장해 탑승감을 높였다. 이나모라다는 이탈리아와 영국 등 유럽 내 주요 부티크에 입점한 브랜드로 해외에선 패셔너블한 반려인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올해 도쿄 인터펫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여 고급스러움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일본인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다. 국내에선 해외 애완동물 용품 유통 브랜드 ‘오드 펫’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랑하면 닮는대…‘화이트 시밀레’

아트로믹스 ‘화이트 시밀레(White Smile)’는 많은 반려동물 커플템 분야 중 주얼리 분야로 선보여 신선함이 돋보인다.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인류를 넘어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통하고 있다. 화이트 시밀레는 펫주얼리 라인 8종마다 테마와 스토리가 있어 디자인 감성을 더욱 끌어올렸다. 전 제품 라인 모두 커플주얼리로 사용할 수 있다. 팬던트 뒷면에는 반려동물의 이름과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각인할 수 있어 액세서리 외에 인식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화이트 시밀레 팬던트는 은으로 제작돼 반려동물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제작됐다.

아직까지 커플 아이템은 펫류 내에서 화제성이 뛰어난 아이템은 아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사진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촬영으로 추억을 남기는 등의 추세로 미루어보아 긍정적인 추이를 기대할 만하다. 사람보다 반려동물과 더욱 유대감을 느끼는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동물과 사람의 유대관계 문화가 자리 잡으면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커플아이템에 대한 소비 요구가 더욱 자극될 것으로 보인다.

김담희 객원기자



▲‘프렌드쉽칼라’는 반려견의 목줄과 반려인의 팔찌를 커플템으로 만들었다. 사진제공 | 프렌드쉽칼라



▲반려견 옷과 보호자의 가방이 한세트인 ‘이나모라다’ 커플 제품. 사진제공 | 오드펫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목걸이로 나눠 끼는 ‘화이트 시밀레’. 사진제공 | 아트로믹스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목걸이로 나눠 끼는 ‘화이트 시밀레’. 사진제공 | 아트로믹스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반려견 벌칙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최인영의 반려동물 SOS

“말썽쟁이 막둥이 뽀빠, 어떻게 혼을 내야 될까요?”

반려동물의 올바른 행동을 위해 벌칙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특히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려견을 바람직하게 기르고 싶다면 벌칙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벌칙은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교육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벌칙’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혼을 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을 통틀어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반려견 교육에 벌칙이 적절하지 않을까?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정확한 타이밍에 벌칙을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벌칙으로 동물에게 잘못을 인지시키려면 잘못된 행동을 한 1초 이내에 혼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 타이밍을 놓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벌칙을 주기 때문에 반려견의 입장에서 혼은 낫지만 왜 혼났는지 이해할지 못하게 된다.

또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혼나지 않았을 경우 반려견은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혼나지 않은 잘못

은 칭찬으로 받아들여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벌칙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벌칙 훈련의 경우 동물들이 어느 순간 벌칙에 적응하게 되면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호자는 벌칙의 강도를 더 높게 되면서 신체적 손상이나 공포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

보호자도 벌칙을 사용 할수록 폭력성이 함께 증가해 화를 풀기 위해 벌칙 표현이 점점 강화된다.

벌칙에 흔히 사용되는 초크체인(쇠사슬로 된 조임줄)은 기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시추 등과 같은 얼굴이 짧은 품종이나 기도협착증이 있는 반려견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벌칙 사용이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다. 강도와 관계없이 벌칙은 동물에게 공포를 줘 부정적인 보호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개체에 따라 벌칙 강도와 상관없이 심한 공포를 일으킬 수 있고 일상 중에도 쉽게 공포를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감정조절이 안된 상태로 동물을 혼내거나 벌칙을 가할 때가 있다.

하지만 벌칙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이는 교육을 빙자한 동물학대임을 인지해야 한다.

러브펫동물병원 대표원장



최인영 수의사

▲러브펫동물병원 대표원장(타임스퀘어점, 홈플러스 중계점) ▲SK BTV 85번 마이펫비바-신지의 궁금해요 펫닥터 MC ▲㈜러브펫코리아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이사 ▲한국중고육상연맹 이사